

요르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요르단(Hashemite Kingdom of Jordan)

I. 일반개황

면적	89천 km ²	G D P	201억 달러(2008년)
인구	6.1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3,290 달러(2008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대외정책	비동맹, 친미노선	환율(달러당)	0.71(2008년말 기준)

- 요르단은 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한 중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절반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5.9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입헌군주국임.
- 석유·가스의 매장량이 미미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금융, 부동산, 운송,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2003년 이라크戰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對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압둘라 국왕이 군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8.4	7.3	6.3	6.0	5.8
재정수지/GDP	-11.9	-10.9	-6.9	-8.2	-9.3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5	6.2	5.4	14.9

자료: IMF, EIU

□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 2004-06년 요르단 경제는 2003년 이라크戰 발발로 인해 이라크로부터 원유 특혜지원이 중단되고 최대 교역 대상국이었던 이라크와의 중계 무역, 구상무역이 타격을 입었으나, 예상치 못한 'Iraq & Gulf Effects'로 인해 평균 7.3%의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Iraq Effect': 전쟁을 피한 이라크인의 요르단 유입증가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부동산, 호텔, 운송, 무역 등)
 - 'Gulf Effect': 유가급등으로 급속히 불어난 여타 걸프 연안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요르단으로 급속히 유입하는 현상
- 2007-08년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輸入) 수요 감소,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위축에 시달렸으나, 꾸준한 해외 자본 유입, 주력 생산품인 가성칼리 및 인광석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평균 5.9%의 경제성장을 기록함.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악화로 대외원조 및 FDI 유입이

감소되고, 관광 및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3%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및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적 부채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정부보조금 지출, 국방 치안 등으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4-08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9.4% 수준을 기록함.
- 2009년에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반 판매세 수입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의 유가보조금 폐지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는 그 동안 3%대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6-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정부의 유가 보조금 폐지, 이라크인 유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이 요인이 겹치면서 각각 6.2%, 5.4%까지 상승하였음.
-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급등, 정부의 유가 보조금 폐지('08.3월)의 영향을 상당 부문 받아 소비자물가는 사상 최고치인 14.9%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세,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3.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요르단의 통화 디나르(Dinar)는 미 달러에 대한 페그제를 운영중 (US\$1=JD 0.709 고정환율제 적용)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 서비스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지속

- 요르단은 非산유국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하나, 중동 중심부의 교통 요충지라는 지형적 이점으로 금융 및 부동산, 정부서비스, 운송 중심의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여 총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비('07년 기준): 서비스업(70%), 제조업(17.6%), 건설(4.0%), 광업(2.6%), 농림수산업(2.4%) 등
 - 서비스업은 금융 및 부동산(18.6%), 정부서비스(14.8%), 운송 및 통신(18.1%), 상업(11%) 등으로 구성
-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제조업이 전체 GDP의 17.6%를 차지하기는 하나, 섬유, 비료 및 화학원료를 비롯한 원자재 산업이 대부분으로, 생활용품, 산업용품 등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거주 요르단인의 국내 송금액(약 25억 달러), ② 관광수입(약 15.4억 달러), ③ 외국 정부로부터의 개발원조(약 7억 달러) 등 대외 부문에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음.
 - 2007년에 지원된 ODA 규모는 총 6.8억 달러이며, 이 중 무상원조는 4.7억 달러, 유상차관은 2.1억 달러로 집계

[성장 잠재력]

□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역 물류 허브 성장 가능성 보유

- 요르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홍해를 면하고 있는 아카바(Aqaba)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지역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 같은 교통, 물류 허브의 역할은 이라크 전쟁('03)과 레바논 전쟁('06)을 통해 그 진가가 크게 발휘되기도 하였음.
- 최근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아카바(Aqaba) 신항 및 3개 대규모 터미널(일반 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 곡물 터미널, 여객선 전용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PPP 형식으로 추진 중이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정책성과]

□ 민영화 정책 추진 활발

- IMF는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따라, 압둘라 국왕은 1999년 취임 이후 재정수입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력, 석유, 운송 등 부문별로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① 2003년 Arab Potash Company(국영 칼륨개발공사)의 매각(지분 52%), ② 2006년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인광개발공사)의 매각(지분 37%), ③ 2007년 Royal Jordanian(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음.
 - 2008년에는 Jordan Petroleum Refinery Company(JPRG)의 민영화 작업을 착수한데 이어, 의료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추진해 옴.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 타개를 위해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0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00.10),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아카바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경제 체질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암만시 내륙 물류 기지 및 환상도로 건설, 총 7억 달러 규모의 주거 및 상업 단지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2006년에는 약 8억 달러 규모의 '마르카 (Marka) 특별 개발구역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극빈 지역인 마르카 지역을 향후 19년에 걸쳐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대규모 물류 및 유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 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4년 8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2억 달러까지 확대 되었음.
 - FDI: 32억 달러('06) → 18억 달러('07) → 22억 달러('08)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89	-2,200	-1,577	-2,767	-4,795
경 상 수 지 / G D P	0.8	-17.4	-10.6	-16.7	-23.9
상 품 수 지	-3,378	-5,016	-5,035	-6,312	-9,035
수 출	3,883	4,301	5,204	5,700	6,557
수 입	7,261	9,317	10,260	12,022	15,607
외 환 보 유 액	5,446	5,463	6,979	7,929	8,864
총 외 채 잔 액	8,066	7,696	8,000	8,397	6,876
총 외 채 잔 액 / GDP	70.7	61.0	53.9	50.8	34.2
D . S . R .	8.1	6.4	5.9	5.7	4.7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상품수지는 섬유, 화학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상수지도 2004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의 영향을 받아 2005년부터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8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소득수지가 하락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73%나 증가한 GDP의 23.9%인 48억 달러를 기록 하기도 하였음.
-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힘입어

동국의 2009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 수준인 26억 달러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 상품수지: -50억 달러('06) → -63억 달러('07) → -90억 달러('08)
- 소득수지: 5.8억 달러('06) → 8.4억 달러('07) → 6.2억 달러('08)
- 서비스수지: -63백만 달러('06) → -68백만 달러('07) → 132백만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29억 달러('06) → 28억 달러('07) → 35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2000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원조자금 및 대규모 FDI 유입,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말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총 외채잔액은 최근 수년간 약 8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D.S.R도 10%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GDP : 114억 달러('04) → 148억 달러('06) → 201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 70.7%('04) → 53.9%('06) → 34.2%('08)
 - 외채상환비율(D.S.R.) : 8.1%('04) → 5.9%('06) → 4.7%('08)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용 지속

-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1999년부터 압둘라 국왕의 통치하에 있음.
- 압둘라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이슬람 보수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 및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부문 개혁 등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 아울러, 정치활동 및 언론의 자유 등의 정치개혁 추진에도 주력하여 국정운영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개혁 기초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에 National Agenda를 발표함.
 - National Agenda는 선거법, 정당법, 연금법,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 노동법 등,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

□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긴장감을 극복하고 정치 안정세 유지

-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로 인해 요르단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팽배하였으나, 우려했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3년 6월에는 역사적인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 정상회담을 아카바(Aqaba)에서 유치하고, 2003-05년과 2007년 4년에 걸쳐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특별 총회를 주최하는 등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부각시켜왔음.

- 2007년 11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아나폴리스(Annapolis) 중동평화 회담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협상 해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여타 아랍 국가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팔 협상의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재 입증시킨 바 있음.

[국제관계]

□ 서방국가 및 주변국가 등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 압둘라 국왕은 주변 아랍국 및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서방국가에 대한 빈번한 방문을 통해 중동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각인하고 있음.
- 요르단은 대미외교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약 5억 달러(군사원조 2억 달러 포함)의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 양국 교역은 대미관세면제특구(QIZ) 설치('96), 자유무역협정(FTA) 발효('01.12)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對 요르단 원조를 전년 대비 40% 증가한 6.63억 달러(군사원조 3억 달러 포함)로 증액
- 한편, 요르단은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경제적 반대급부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총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은 여전히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 지속

- WTO 가입, QIZ 운영 및 여타 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39%만이 취업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동국의 실업률은 2004년 12.5%에서 2008년 15%로 매년 악화되어 왔으며, 총 인구 중 30세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성과도 지지부진

-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금자에 대한 학대, 고문,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투명 조사 과정,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 사법적 과정에 대한 간여 등 광범위한 경찰권의 남용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
- 연금, 사회보장, 상속, 노동, 이혼, 여행의 자유, 시민권, 명예살인 등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동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 사건의 25% 가량이 명예살인(honor killing)*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명예살인 행위는 murder(살인)가 아닌 manslaughter(고살)로 간주되며, murder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장 2년 형을 선고 받는 정도임.

*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

- 정부는 동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제반 국제협약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5등급 (2008. 1) → 5등급 (2009. 4) 유지
- o Moody's : Ba2 (2003. 8) → Ba2 (2007. 12) 유지
- o S&P : BB (2003. 7) → BB (2007. 12) 유지
- o ICRG : 92/140 (2008. 11) → 84/140 (2009. 2)
- o I.I : 81/174(2008. 3) → 83/177 (2008. 9)
- o Euromoney : 75/185 (2008. 9) → 73/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부담 감소

- 요르단은 파리클럽으로부터 1989-1999년간 5차례에 걸쳐 8억 달러의 채무상환연기를 얻어낸 바 있으나, 2005년에 또 다시 총 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함으로써, 연간 약 3.5억 달러의 외채상환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였음.
- 2007년 10월에는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25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 할인하여 구매하는 buy-back 형식의 탕감 승인을 얻어 외채상환 부담을 완화한 바 있음.

-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요르단의 채무는 총 외채의 60% 수준인 4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buy-back 대상국은 프랑스(8.58억 달러), 영국(6.94억 달러), 미국(3.61억 달러), 스페인(92백만 달러), 독일(30 백만 달러) 등임.
- 단기외채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D.S.R도 1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요르단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359	386	734	수송기계, 비철금속제품, 산업용전자제품 등
수 입	43	48	55	정밀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등
합 계	402	435	789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년 7월 26일(북한과는 1974. 7. 5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72), 문화협정('77), 경제 및 기술협정('77), 항공협정('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04)
-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81%나 증가한 약 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자동차), 비철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약 7억 3천만 달러, 수입은 정밀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5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對 요르단 수출은 그 동안 3억 5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부터는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신차가 중고차 시장을 대체) 자동차 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급부상(총 수출의 약 60%를 차지) 하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발전, 하수처리, 건설,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있어서 국내기업(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LS전선 등)의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2009년부터는 한국형 원자로의 첫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對 요르단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수입은 요르단의 빈약한 수출산업 기반으로 인해 비금속광물과 나프타 등 기타석유화학제품 중심의 일부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음.

□ 해외직접투자(2008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7건 12,366천 달러

V. 종합의견

- 요르단 경제는 빈약한 산업기반,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기조, 대외원조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취약점이 있으나, 석유수출 호조, 관광산업의 회복,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평균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對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 압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부터 심화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대외원조 및 FDI의 위축 등의 불안요인이 2009년까지 이어져 당분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압둘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 재정수지 적자폭도 개선

될 것으로 보여 비교적 안정된 성장이 전망됨.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르단의 국별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C2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